

영국과 한국에 있어서의 초기 해방 두 여성 작가들의 여성성의 실천적 의미 비교연구*

이덕화**

차 례

1. 머리말
2.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의 역사적 평가
3. 국가적 전망에 따른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4. 가부장적 환경과 자기실현
5. 작품과 실제 삶에 나타난 여성적 윤리
6. 여성성 실천으로서의 ‘숭고한 법에 굴복’과 ‘슈퍼우먼 콤플렉스’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나혜석과 조지 엘리엇의 글쓰기와 삶을 통하여 드러난 여성성의 실천성의 의미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여성주의적 접근 방법을 택한다. 여기서 여성주의라는 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글쓰기와 삶에 녹아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여성주의 방법은 학적으로서의 정당성과 객관성, 그 외의 실천적 가치 지향을 포괄한다. 그를 위해 분석 대상을 장르 구분 없이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되 자서전적인 것으로 채택한다.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 재운 (교육인적 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A00042)

** 평택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나혜석과 조지 엘리엇은 한 세대라고 하는 시간적 간격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철저한 삶을 살아가자 했던 나혜석은 한 시대 앞서간 조지 엘리엇보다 더 보수적인 사회적 장벽에 부딪쳐 불행한 삶으로 마감한다. 반면 조지 엘리엇은 작품의 성과에 있어서도, 또 인간적으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이 두 간의 차이는 자본주의 발흥기에 있던 식민제국이었던 영국이라는 국가와 식민 모국이었던 한국의 국가적 운명과의 관련이 있다.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여성과 여성으로서의 배려의 삶을 중요시하는 열린 주체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식민지 지배국인 영국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의 삶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제도 개혁을 함께한 영국은 근대 영국을 향해 가는 전망이 개인에게까지 미쳐 긍정적인 자기 발전으로 나아가고, 타인을 함께 어우르는 삶으로 자리 잡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절름발이식 개혁,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거나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의식 개혁만을 부르짖고 식민지 지배 담론만을 모방하려고 한 양가성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개개인은 자기부정에 이르고 이는 타인을 폄하하고 축출하는 극단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나혜석 역시 자신 스스로도 양가성의 논리 속에서 모순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희생자이기도 하다.

조지 엘리엇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도덕적 엄격성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자유분방함은 사회적 유기적 관계에서 인간의 진정한 관계라는 ‘숭고한 법’을 따른 것이나 나혜석에게 나타난 ‘슈퍼우먼 콤플렉스’ 역시 남성 우월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유기적 인간관계를 고려한 삶의 전략이다. 나혜석의 ‘슈퍼우먼’식 여성상은 『경희』에서 나타난대로 거의 완벽한 여성상이다. 현모양처를 위한 가사일은 물론 자녀양육까지 완벽하게 하고 또 자기 실현을 위한 일도 철저히 해나가는 완벽한 여성상이다. 이것은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하나의 원칙을 고집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열린 주체로서 여성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조지 엘리엇이나 나혜석의 전략은 여성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살핌의 미학에 의해서, 여성 주체로서 중심이 아니라 다양을 통일적이게 하는 힘, ‘여성’이라는 형식 안으로 모으는 힘이며 그 힘의 역동적 표현인 것이다. 그 힘은 어느 한 지점에서 권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 않으며 끝없이 유동하는 여성성의 실

천의 장이다.

핵심어 : 여성주의 방법, 여성성, 국가적 운명, 숭고한 법칙, 슈퍼우먼 콤플렉스

1. 머리말

본 연구는 나혜석과 조지 엘리엇의 글쓰기와 삶을 통하여 드러난 여성성의 실천성의 의미를 비교하는데 있어서 여성주의적 접근 방법을 택한다. 여기서 여성주의라는 것은 역사를 관통하는 글쓰기와 삶에 녹아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 분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채택한다. 여성주의 방법론은 학적으로서의 정당성과 객관성, 그 외의 실천적 가치 지향을 포괄한다. 그를 위해 분석 대상을 장르 구분 없이 글쓰기를 대상으로 하되 자서전적인 것으로 채택한다.

한국과 영국의 근대는 1세기의 차이를 보인다. 영국은 산업 혁명 후 19세기, 빅토리안 시대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근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빅토리안 시대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의 욕망이 팽창, 다양한 움직임과 함께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진다. 또 여성 작가들의 진출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도 하다. 조지 엘리엇을 비롯한 샤프트 브론티 자매, 제인 오스틴, 가스켈 등 가장 작품 활동을 활발한 여성 작가가 등장한 시대였다. 영국의 이 작가들은 대부분 세계적인 작가로서 성공한 작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의 여성성 실천을 비교연구 함으로써 그녀들의 욕망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성취에 이루

고, 못 이루었는가를 국가적 운명과 연관시켜서 분석해보려고 한다.¹⁾ 두 작가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두 사람의 인생 경로가 비슷하고, 두 사람의 비교 연구 자체만으로 다른 여성 작가들에 관해 충분한 해석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²⁾ 왜냐하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의 여성 작가들은 대부분 작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어도 성공했고, 한국의 초창기 여성작가들은 작품에서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실패했다. 작가로서의 성공은 작품의 성과와 관련해서 논의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문학사

1) 영국의 1800년대와 한국 1900년대는 국가적으로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식민지 제국과 피식민지국이라는 상반된 입장에 있었지만, 여성의 입장에서는 비슷한 근대를 체험하는 시대적 공간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한다. 사회적으로 진보를 지향하는 성의 개방이나 자유결혼, 자유연애의 문제, 여성해방 등 또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성적 문란을 야기하는 사회 풍속의 차원에서 단속, 금기가 교차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초창기 근대 여성 해방기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여성 의식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로 인한 여성의 실천은 국가적 운명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어떻게 전개 되는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여성 작가나 문학 작품이나 시대적 흐름의 비교 연구가 서로 영향 관계에 의해서만 연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대 그리스나 동양의 성인들이 많이 등장한 시대가 일치하는 것이 영향관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동 서양이 서로 영향을 없었다 하더라도 역사적 조건에 의해서 성인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서로 영향 관계에 의한 비교 분석은 오히려 주어진 해답 안에서의 조건 지어진 분석만을 요구할 뿐이다.

2) 영국의 조지 엘리엇과 비슷한 시기의 샤롯데 브론테 자매, 제인 오스틴, 그 후의 버지니아 울프 등의 작품의 성과는 우리가 알다시피 각기 개성은 다르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가라는 점에서 성공한 작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역시 샤롯데 브론트 자매가 일찍 세상을 하직한 것은 가족력에서 오는 허약함이고, 버지니아 울프 역시 심리적 우울증으로 남편에게 심리적 부담으로 주고 싶지 않다고 자살한 것으로 극히 개인적 죽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나혜석이나 김명순의 죽음, 김일엽의 도피는 시대적 흐름인 자유 연애로 인한 부작용, 성문란이나 이혼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신여성에게 뒤집어 씌워 마녀 사냥을 한 사회적 매장의 의미가 있는 죽음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국과 한국의 해방 초창기 여성 연구에 있어서, 1800년대 영국과 1900년대 한국의 역사적 회오리의 중심에 있었던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충분히 다른 여성 작가들과의 연구까지도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 평가에 따른 것이다.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은 한 세기 이상 시대적 차이와 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지역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여성으로서의 진보적 삶은 오늘날의 여성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조지 엘리엇이 살았던 영국의 19세기 초와 우리나라의 일본 제국주의 하의 절름발이 근대화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했던 20세기 초, 두 나라의 발전 속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역사적 지리적 환경, 또 한 세기가 다른 시대였음에도 여성 해방기 초창기 여성들의 의식이나 여성들의 지위 변화는 거의 궤를 같이 한다.

두 사람 다 똑같이 그 당대에는 가장 진보적 삶을 살았음에도 작품의 세계도, 그들의 삶의 과정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 다른 원인을 개인과 상호 연관 되어있는 전통적 사회의 윤리나 그 당대의 시대적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한번 고찰해보고자 한다. 즉 한 사람은 당대에서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성공적이었던 반면, 한 사람은 화가로서, 작가로서 또 개인적인 삶까지도 극점을 향해 치닫는 순간, 한 순간의 잘못으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하였을 뿐 만 아니라 그 이후 작품 활동을 더 이상할 수 없었다. 성공과 실패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향하는 바, 삶의 목적을 향해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연유로 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좌절되느냐에 따라 그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우연히 만나게 된 조지 엘리엇을 통해서 연구자의 한 사람으로 나혜석의 비참한 생과 조지 엘리엇의 탁월한 작품 성과와 행복한 생의 마감 사이에는 전통적 윤리와 역사적인 환경, 그것을 조정하는 개인적 역량, 그런 것들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나하는 의구심이 이 논문을 시작한 동기가 되었다.

또 한편 세 신여성, 김명순, 나혜석, 김일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 다른 나라 근대 초창기 여성들의 작품과 그 성과를 포괄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질 때 가능하리라 생각되었고, 그 시작으로 이 연구를 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혀 문화적인 영향관계가 없었던 서양에서부터 영향관계를 가졌던 일본 근대 초창기 여성작가의 연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작가가 살았던 역사적 배경, 전기적 고찰, 작가의 작품 비교, 교류했던 지적인 배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의 역사적 평가

조지 엘리엇은 엘리자베스 가스켈(Elizabeth, Gaskell), 브론티 자매(Charlotte and Emily, Bronte), 제인 오스틴(Austen, Jane) 등과 함께 19세기 빅토리아 문학을 빛낸 여성작가였다. 리비스³⁾는 헨리 제임스(Henry James), 조세프 콘라드(Joseph Conrad), 제인 오스틴과 함께 영국의 4대 작가의 한 사람으로 조지 엘리엇을 다루고 있다. 그 외 많은 비평가들이 그녀의 소설이 빅토리안 시대의 중류 계층의 윤리를 탁월하게 드러냈으며, 묘사의 탁월성, 지성적 깊이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조지 엘리엇에 관한 비평 중에는 도덕 선생과 같은 작가적 해설에 대한 불만과 형식이 뒤떨어진다는 평 또한 만만치 않다.

페미니즘 비평가 중 케이트 밀레트⁴⁾는 조지 엘리엇이 조지 헨리 루이스⁵⁾와 이십 년 이상을 동거하는 등 당대의 인습적인 도덕에 과감하게

3) F.R. Leaves, *The Great Tradition*(London, Penguin Books inc. 1972)

4) Millett, Kate. *Sexual Politics*(New York, Ballantine Books, 1969) pp.196~197.

5) 자유연애주의자인 George Heny Lewes는 부인 Agnes Lewes가 자신의 친구

도전하는 한편 작가로서도 탁월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속의 여주인공들의 보수적 윤리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이런 케이트 밀레트의 평은 조지 엘리엇에 대한 1970년대 이후의 페미니즘 비평의 주류를 이루었다.

나혜석은 화가와 작가로서 192, 30년대 두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으며, 외교관의 부인으로, 네 자녀의 어머니로서도 훌륭한 여성이었다. 화가로서는 전문적 화가만을 대상으로 경쟁하는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1922년 첫 회부터 4회까지 연속 입선, 5회 때 「천후궁」으로 특선, 구미 여행 중에는 출품을 중단, 귀국 후 1931년 다시 「정원」이 특선, 32년 11회 무감사 입선하였다. 또 조선에서 여성으로서 최초의 유화개인전을 개최, 5 천여 명의 관객을 끌어들이는 최초의 여성 화가였다.

나혜석은 작가로서도 작품 구성력에 있어서나 묘사력에 있어서도 그 당시 남성작가를 능가하는 작품 「경희」를 이광수의 『무정』이 발표된 이듬해 1918년 동경 여자유학생의 친목 모임인 <조선여자친목회>의 기관지 『여자계』 2호에 발표했었다. 그 외에도 식민지 상황에 처한 조선의 현실을 알레고리화한 「희생한 손녀에게」⁶⁾, 가부장제의 구습에 희생당한 여성들의 운명을 그린 「규원」⁷⁾ 「월한」⁸⁾, 혁신적인 성 이론을 제기한 1930년대 수필 「여인 독거기」, 「이성간의 우정론」을 바탕으로 한 소설 「현숙」⁹⁾, 신여성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주체성을 찾겠다는 딸과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어머니와의 갈등을 그린 「어머니와 딸」 등의 소

Thornton Hunt와의 사이에 아이가 생기자 자신의 자식으로 입적, 그 당시 영국 법적으로 부인의 부정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 평생 이혼할 수 없었다. 그래서 Geroge Eliot과 1854년부터 Lewes가 죽기 전 1878년까지 동거했다.

6) 『女子界』 제3호. 1918.9

7) 『新家庭』 1921.7

8) 『朝鮮文壇』 1926.4

9) 『三千里』 1936.12

설과 희곡, 여성적 체험을 쓴 다수의 수필과 시를 발표했다.

그 당대의 주로 남성작가나 남성평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혜석에 대한 평가는 다른 신여성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것은 남성들이 일본 제국주의를 벗어나는 길은 서양 문물을 모방한 근대화의 길밖에 없음을 인식, 결혼 제도와 풍습을 개혁하고자 했던 ‘자유연애’나 ‘개성의 발견’이 결국 관념적으로만 인식, 그로 인해 빚어질 갖가지 부작용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화를 지향하는 남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시작한 근대화의 길이라 자신들조차 그 전망을 가늠할 수 없었고, 그 자신 없음을 결국 자신의 타자인 여성에게 되돌린 것이다. 즉 근대화의 최고의 걸림돌인 과거의 가부장적 의식을 극복한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자장 안에서만 가능하다. 경제적 활동의 길이 막혀 있던 신지식인이나 신여성은 결국 경제적 주체인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려는 ‘아버지’에게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었다. 피식민지 모국을 둔 국민으로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은 자작농으로 농사를 짓거나, 자기 자본으로 장사를 하는 것 외의 길은 없었다. 대부분의 신지식인은 스스로의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기보다는 구세대에 예속된 경제 활동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취업을 원했지만, 취업은 한정되어 있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대부분의 ‘신지식인’¹⁰⁾은 심리적 불안감 속에서 방황했다.

이런 근대화를 향한 집념과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는 절름발이식 근대화로 나아가는 이중 모순 속에서 ‘신여성들’의 의식을 진지하게 고찰하고, 여성들을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남성들의 담론

10) 여기에서 ‘신지식인’이라는 용어는 그 이전의 서당에서 교육을 받던 구지식인과 변별된다는 점에서, 새 신식 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신문물을 받아들인 지식인들 가리킨다.

이나 가부장적 풍습과 다르다는 것으로 여성들을 대상화, 하나의 가십 거리로만 대하려 했고, 여성들을 더 이상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게 했다.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을 비판하기 위해 쓴 소설 김동인의 『김연실전』이나 염상섭의 『해바라기』, 『너희는 무엇을 어땀느냐』는 그 대표적 예이다.

1990년대 이후 여성연구자들에 의해 나혜석의 독특한 생애를 둘러싸고 이루어졌던 담론 분석, 혹은 초기작 『경희』의 작품 분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그리고 <나혜석 기념 사업회>¹¹⁾라는 어떤 특정한 남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나혜석 기념 심포지움을 열고 있어 지속적인 연구물이 나오고 있다. 또 나혜석 전집이 태학사와 한길사에서 나란히 출판되었다. 2000년 2월 문화관광부로부터 '2월의 문화인물'로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혜석의 고향인 수원시에 나혜석의 거리가 만들어짐으로 나혜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나혜석의 예술적 평가와 함께 나혜석의 독특한 예술적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것이다.

3. 국가적 전망에 따른 '자기 긍정'과 '자기 부정'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와 20세기 한국의 역사적 배경은 지역적 거리만큼이나 상반된 상황이었다. 영국은 산업 혁명으로 인한 경제적 발전에 따른 부르주아 의식의 빠른 성장으로 정치적인 면에서부터 다양한 개혁의 욕구가 분출했고, 그에 따른 개혁이 순조롭게 이루어짐으로 인

11) 이 사업회에 대해서는 나혜석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연구업적을 축적한다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지지만, 어떤 특정한 남성에 의해서 사업회 자체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 순수한 연구자들의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해 다양한 계층에서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반면 한 세기가 지난 한국에서는 일본의 제국주의의 희생양으로 정치적인 힘을 잃어버림으로, 또한 경제적인 토대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실제적인 제도 개혁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또 일본의 식민주의적 정책에 따라 우왕좌왕, 근대화로의 욕망만이 있을 뿐 제대로 근대화로 진입할 수 없었다. 단지 의식적인 측면에서만 가능했다.

섹스피어를 제외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영국 작가, 워즈 워드, 브론티 자매, 헨리 제임스, 디킨슨, 제인 오스틴 등의 대부분의 작가가 빅토리아 시대의 작가였다는 사실은 그만큼 19세기 작가들이 영국문학사를 풍성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설 장르에서 섹스피어와 빅토리아 시대 작가를 제외하면 더 이상 영국 소설을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빅토리아 시대에는 소설 작가들이 많이 등장했던 시대였다. 게오르그 루카치가 소설을 부르주아 장르라고 했던 것이 과연 진리임이 입증된다.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는 부르주아 혁명의 시발점이 되는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의해서 새로운 개혁의 물결이 온 영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었다. 영국은 최초로 산업화된 나라였고, 1770년부터 계속된 산업혁명은 19세기 초반에 와서는 전성기였다. 이로 인해 그 이전 농업 경제에 의한 물질적 기반은 이제 공업, 상업에 의한 물질적 기반으로 차츰 옮겨져 실업가와 노동자 계층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되었다. 새로운 계층의 형성은 귀족 사회에서 이제 부르주아 사회로의 이전을 불가피하게 했다. 새로운 물질적 기반과 부르주아 계층의 형성은 정치적 사회적 제도와 종교적 개혁을 요구했고, 이는 빅토리아 시대의 큰 흐름이 되었다.

빅토리아 시대 이전의 영국 사회는 귀족에 의해서 정치적, 경제적 중

교적 권력까지 장악된 사회였다면, 빅토리안 시대부터는 근대화된 제도, 정치, 경제, 종교가 분리, 정치는 전문 행정 관료에 의해서 경제 부흥은 신흥 부르주아에 의해서 그 동안 정치적 권력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교구가 분리 해체, 종교는 국교도에서 진보적인 성향인 비국교도로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몇 차례의 선거권에 의한 신흥 부르주아의 확대, 국교보다는 비국교도인 복음주의 운동, 교육 법안 제정 등이 있었다.

이로 인해 빅토리안 시대에는 중류 계층의 문화가 형성되었고, 자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위한 엄격한 윤리적 생활양식을 요구하였다.¹²⁾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플라톤이 자기 계층인 귀족 계층을 영속시키기 위해 『이상국가』를 통해서 엄격한 윤리를 요구했던 것과 같다. 이런 중류 계층의 엄격한 윤리는 그 당대의 작가들, 디킨슨, 제인 오스틴, 조지 엘리엇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난다. 빅토리안 시대의 중류 계층은 현대의 부르주아 계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가정을 중시하고, 그들의 자녀에게 투자할 어느 규모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들은 국교도 보다는 비국교도¹³⁾가 많았다. 중류 계층의 이런 특징들은 전통적인 윤리를 내세우는 데는 상당히 보수성을 띄면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조지 엘리엇의 실제 삶과 작품 속에 그대로 드러난다.

특히 세 차례에 걸친 기혼 부인법 재산권법 개정¹⁴⁾ 등으로 또 여성의

12) CC Eldridge, *Victorian Imperialism*(Morrison and Gibb Ltd, 1978), p.45

13) 주로 감리교도, 조함교회파, 침례교회 등

14) 1870, 1882, 1893년의 3회에 걸쳐 기혼부인 재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혼 여성들에게도 미혼 여성과 같은 재산권이 인정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결혼한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소유가 되었고, 친척으로부터 상속되는 재산 역시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줄리아 프렛 브라운, 『19세기 영국 소설과 사회』(열음사, 1990) 박오복, 이경순

권위가 상승되던 시기였다. 이로 인해 상류 계층의 부인들의 지위는 향상되었지만, 중류 계층 여성들은 여전히 직장이나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직업이 한정되어 있었다.

빅토리아 시대의 소설 『제인 에어』나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등에서 나타나는 가정교사가 가장 무난한 그 당시 직업이었고, 그 외 문필업, 저널리즘에 종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런 사정으로 여성들에게 결혼은 직업과 동격의 개념이 되었으며 여성들의 이상이 되었다. 이때부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넘어가는 부르주아 사회에서의 공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남성과 사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여성의 분업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빅토리아 시대의 가정에 머무르는 여성을 ‘집안의 천사¹⁵⁾’라는 용어로 미화된다. 이런 여인상은 당대 여성 작가들의 내면의식으로 자리 잡는다. 조지 엘리엇의 『목사 생활 풍경』의 여주인공 아모스의 아내 ‘바톤(Milly Barton)처럼’ 모든 재산과 모든 교양을 능가하는 부드러운 여성, 수줍음과 당당함을 겸비한 여성, 남편을 위해 존재하는 여성이다. ¹⁶⁾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보다 한 세기가 지난 한국에서는 일본의 강압적인 한일합방에 의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인 개혁은 거의 불가능했다. 제 나라를 잃은 반성과 나라의 부국강병책으로 여러 가지 자구책이 논

공역.

15) ‘집안의 천사’라는 개념은 1885년에 발표된 패트모어(Coventry Patmore)의 시집 제목에서 따온 용어로 빅토리아 시대의 성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용어이다. 즉 희생, 자기망각, 도덕적 순결, 봉사라는 여성들의 덕목이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 속에 있음을 강조하는 당대의 믿음에 의한 것이다. 충실한 여성의 세계는 자기 집 네 벽 안에 놓여 있으며 자신은 단지 남편을 통해서만 바깥 세계와 전격적으로 통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다.

이순규, 『조지 엘리엇과 빅토리아 페미니즘』(동인, 2003) p.43.

16) Joseph Wiesenfarth, *Goerge Eliot's Mythmaking*(Heidelberg, Carl Winter Univ, 1977) p.62

의되었지만, 결국 정치적인 힘을 잃은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력을 양성하는 길밖에 없었다. 그에 따라 전통적인 유교 이념에 따른 구습을 타파하고, 근대 문명이라는 기치 하에 서양문명의 과학주의, 합리주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여 힘을 양성하여 근대화하는 길만이 일본 제국주의로 벗어나는 길처럼 생각되었다.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은 근대문명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고, 유학을 다녀온 후 이들은 일제하의 한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되었다. 일본과의 한일 합방에 책임 있던 양반 지도자들은 일본으로 망명했거나,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새로운 근대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지도자는 유학을 다녀온 젊은 계층뿐이었다. 유학생들의 대부분은 양반 계층의 자녀도 있었지만, 중간 계층에 속하는 중인 계층과 양반 정실 자식보다는 첩의 자식, 혹은 소작농의 아들들이 양반 계층의 후원을 얻어 유학을 떠나는 경우도 많았다. 소위 그들은 ‘신지식인’¹⁷⁾층에 속했다. 또 한 이 당시 여성들도 함께 유학을 갔었는데, 이들 역시 양반 계층의 자녀도 있었지만, 양반의 첩 딸이나 중인 계층의 딸들이 많았다. 이들 역시 ‘신여성’이라 불리어졌다.

이들 ‘신지식인’들이나 ‘신여성’들은 1910년대에는 일본의 무력 정치에 의해 정치적 사회적 욕구들을 분출할 기회를 찾지 못하다가, 1920년대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정치라는 기만적인 통치체제에 의해 잠시 욕구들을 분출할 기회를 찾았다. 이들 지식인 대부분은 일제하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담은 형식을 통해서 민중들을 선동했다. 그 대표적 인물이 이광수와 최남선이었다. 이 중 한 사람은 중인 계층의 출신이고, 한 사람은 고아였다. 이들의 이념적 뿌리는 근대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근대사회로 향하기 위한 기본 조

17) ‘신지식인’은 여기에서 신식 교육 기관에서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인으로 과거 서당 교육을 받은 과거 지식인과는 구분된다.

건이 되는 경제적 토대에 관한 한 그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근대 이념적 개혁을 통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각해서 일어서기를 바랐다.

그것이 결국 인습에 대한 개혁으로 나타나고, 부모의 강권에 의해서 진행되는 전통 결혼이 유교적 악습으로 인식, 당사자의 자유 의지로 결정하는 자유연애와 자유결혼을 주장한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은 자유연애를 통한 자유결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남녀만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결혼을 결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지식인'이나 '신여성'은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했다.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남녀의 자유연애에 이은 자유결혼, 이로 인해 사회적 물의는 끊이지 않았다.¹⁸⁾ 그러기에 근대화의 핵심 이슈가 되는 '개성'을 발휘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근대화의 개혁적 인물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유학을 거친 '신지식인'이었지만, '신지식인'의 물질적 기반은 거의 없었다. 돈 있는 개혁파의 도움, 혹은 부모님의 학비 도움으로 유학을 다녀왔지만, 스스로 물질적 기반을 가지기는 역부족이었다. 그 당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은 부모의 말을 잘 따르거나, 아니면, 친일의 길 밖에 없었다.¹⁹⁾ 물

18) 그 당시 신문 사회면을 채웠던 자살 기사 대부분이 자유연애에 이어 남자측 부모의 결혼 반대로 인한 것이다.

19) 물질적 기반인 남자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내지 못해 운심덕과 그 애인이 자살한 경우를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자유연애론자들의 자살도 결국은 경제적인 이유였다. 일본 사법고시에 붙어 일본 공무원을 했다는 이유로, 외유 중 미국에서 친일로 수모를 당한 나혜석의 남편 김우영이 귀국 후 일본 외무성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걸으려고 했다. 그러나 취약한 조선인의 경제력에 의존한 변호 사업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궁핍 때문에 다시 일본 공무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신여성은 물론 신지식인조차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경제적 기반이 약했었다. 나혜석의 말기의 참혹한 죽음도 결국 경제적인 궁핍함과도 관련이 있다. 이혼 후 그림으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두 번째 전시회도 실패로 돌아가고, 1933년 문을 연 우리나라 최초의 미술 개인지도를 목표로 한

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유연애'나 '개성'의 발휘는 죽음의 길 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 전 시대의 제도와 풍습에 적절히 타협해야 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근대화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조선은 다시 민족주의로 환원, 1920년대 불된 서양의 근대화 의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의식적 개혁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개혁과 함께 균형을 이루면서 발전해야 함에도, 정치적인 암흑으로 절름발이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일할 기회를 찾을 수 없는데서 오는 경제적인 박탈감은 결국 인간을 박제화 시켰다. 의식적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인적 독립을 강조했지만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미래의 불투명 등으로 지식인은 한국 사회의 미래에 대한 신념을 가질 수 없었으며, 이는 한국 국가 자체에 대한 부정에서 결국 '자기부정'으로 나타난다.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조차 부정하는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여성혐오 발언이 나오고, 여성들을 사회에서 축출하고자 했고 그 희생양으로 결국 '신여성'이 선택되었다.²⁰⁾ 남성에 의해서 가부장제의 풍속을 해친 마녀이면서, 서양의 근대를 모방한 민족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사설학원의 효시가 될 수 있는 '여자미술학사' 역시 일년도 채 안되어 문을 닫아야 했다.

20) 주디스 버틀러는 혐오발화의 수행적인 힘은 개별 주체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인 반복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여이연, 2006) p.168)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성 작가, 조지 엘리엇이나 버지니아 울프 같은 여성은 남편이나 다른 남성들에 의한 지나친 호의가 부담스러울 정도였고, 또 그로 인해 작가로서의 생존이 가능했다. 예를 들면 이 글의 초반부에 언급했지만, 조지 엘리엇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리비스 같은 비평가는 조지 엘리엇을 영국의 4대 작가에 포함시킴으로 그 이후 조지 엘리엇에 연 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반면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의 남성 작가들이나 평론가들의 부정적인 평가는 그 이후 신여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었으나, 1990년대 여성 연구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있다.

쓰고 역사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²¹⁾

반면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에 의한 부르주아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진 제도 개혁은 영국 국민에게 국가에 대한 신뢰와 미래의 확신, 이로 인한 ‘자기 긍정’은 전통적인 윤리까지도 받아들이는 그 사회에 대한 신뢰로 나타난다. 즉 ‘자기 긍정’은 결국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박애 정신으로 드러난다.

4. 가부장적 환경과 자기실현

조지 엘리엇이나, 나혜석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일은, 여자로서 겪는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갈등과, 갈등의 극복 과정 혹은 실패 과정, 작가로서의 성공, 혹은 실패 요인의 분석에 의해서 가능할 것이다. 한 인간이 삶의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과 성실도 중요하지만, 특수한 환경 하에서는 한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 당대의 지적인 환경과 국가적 전망이 한 개인의 역량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 점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성들의 운명은 더 역사적 환경에 종속되어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독립이 극히 제한되어 있는 여성들의 운명은 남성들의 운명과 긴밀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남성들의 운명은 또 국가적 전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 지리적 환경에 의해서 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 세기의 시간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두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적 환경은 크게 다르지 않다. 두 여성들은 경제적 독립을 위해, 예술이나 저술 활동에 종사했지만, 결국 국가적 전망이 밝은 영국에서는 성공하지만, 국가적 전망이 어두웠던 한국에서는 실패했다. 두 여성의 성공과 실패 사

21) 1930년대 들어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세 명이 모두 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

이에는 국가적 운명과 긴밀한 상호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부장적 환경과 관련이 있다.

조지 엘리엇이 런던으로 오기 전 30세까지 살았던 곳은 19세기 초 뉴캐슬, 리즈, 버밍엄 등과 함께 산업 중심지였던 코벤트리와 와위크셔(Warwickshire)였다.²²⁾ 이 두 지역은 런던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중부 지방의 시골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경제 부흥 도시라는 시대적 특성에 의해서 2중적 가치를 지닌다. 이런 점은 바로 조지 엘리엇의 특성과도 연관이 된다.

조지 엘리엇은 태어난 도시 와위크셔에서 코벤트리의 로즈 힐로 옮겨 오면서, 일군의 진보적 지식인을 만나게 되고 그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여학교 때 선생 루이스를 만나 신앙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녀는 또 로즈 힐의 지성인 그룹에서 또 다른 영향을 받았다. 이 그룹은 조지 엘리엇의 인생에서 첫 번째로 지적 욕구를 충족시킨 모임이었다.²³⁾ 또 그녀의 지성을 처음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1847년 독

22) 19세기 초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Lancashire, Manchester, 서쪽 중부지방인 Newcastle, Leeds, Birmingham 그리고 Coventry는 지방 부르주아들이 새로운 산업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신흥 부르주아가 탄생한 지역이며 이로 인해 땅을 가진 지주들에 도전했다.

Simon Dentith, *George Eliot*, (The Harvester Press, 1993) p.9.

23) 로즈 힐의 중심 멤버인 찰스 브레이 역시 코벤트리 지역의 2중적 지역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인물이었다. 즉 그는 리본 제조업자가 만든 리본을 창고에 모아두었다가 무역을 하는 신흥 부르주아이면서 진보적 지식인으로, 또 저자이면서 자유사상가로 코벤트리 헤랄드의 출판인이면서 편집인으로 코벤트리의 지역 사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다. 그의 부인, 그의 처제, 그의 동서가 함께 모여 로즈 힐의 서클을 형성한 이 모임은 코벤트리 지방의 종교, 문화, 전통 모든 면에서 과거를 부정하는 현대 사상을 받아들인 아방가르드였다. 그 당대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였던 엘리자베스 가스켈, 그 당시의 여권운동가 하리에트 마트노와 함께 합류한 조지 엘리엇은 이 모임에서 깊은 종교적 영향을 받는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국교회를 반대하는 유니테리언(Unitarian)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고, 삼위 일체설을 부정한다. 이 당시 영국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일어 숙어,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독일 철학 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미묘한 번역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스트라우스의 『예수의 일생』과 포이에르 바흐의 『기독교의 본질』을 성공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조지 엘리엇은 지성인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 조지 엘리엇은 포이에르 바흐의 무신론에서 깊은 영향을 받는데, 포이에르 바흐의 무신론은 19세기 부정적 무신론과는 변별되는 독단적인 종교가 제외시키고 있는 인간적인 점을 부각시키는 휴머니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²⁴⁾

그 후 그녀는 그의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가부장적 세계와의 첫 번째 갈등을 겪는다. 이 사건은 그녀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특징적인 사건으로, 그의 아버지가 강요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 아래 몇 달간의 갈등 끝에 교회는 참석하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것을 허락 받는다.²⁵⁾

두 번째 조지 엘리엇이 영향을 받았던 지적인 그룹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리뷰』에 기고하는 진보지식인 그룹이었다. 조지 엘리엇은 저술 활동으로 생계유지를 할 것을 결심하고 런던으로 온다. 거기에서 조지 엘리엇은 한때 자신의 번역 책을 출판해줬던 출판인 존 채프먼(John Chapman)을 찾아간다. 그가 바로 출판인이면서 『웨스트민스터 리뷰』에 출자를 한 장본인이었다. 이 존 채프먼 역시 주 업무는 출판인이면서

하지만 성경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독일의 종교 학자이면서 성격분석학자인 D.F.Strauss, 휴머니즘 철학자, Ludwig Feuerbach,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휴머니즘 종교 기획자, Auguste Comte 등 대부분의 종교나 철학 관련 학자들이 기독교의 신성을 부정하려 했다.

Simon Dentith, 위의 책. pp.11~13.

“Unitarian denied the co-eternal divinity of Christ and Atonement”

Rosemary Ashton, *George Eliot, A life*(penquin books, 1996), p.36.

24) Gordon S. Haight, *George Eliot: A Bi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1968) p.284.

25) Rosemary Ashton, 위의 책. pp.43~45.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숙업을 했다.²⁶⁾ 존 채프먼이 『웨스트 윈스터 리뷰』를 인수하자 조지 엘리엇은 편집 일을 도맡아 하게 된다. 『웨스트 윈스터 리뷰』는 조지 엘리엇의 헌신으로 진보 성향의 핵심 잡지로 부각된다.²⁷⁾ 조지 엘리엇은 여기에서 무 보상으로 일을 했지만, 그 당시 지식인의 중심 잡지였던 『웨스트 윈스터 리뷰』의 편집인 자격으로 많은 런던 진보 지식인과 교류하는데 성공한다. 진보 지식인의 대부분은 『웨스트 윈스터 리뷰』의 기고자였던 토머스 헉슬리, 존 스튜어트 밀, 하디트 마티노, 허버트 스펜서, 조지 헨리 루이스 등으로 그들은 유럽 대륙의 철학, 사회과학, 종교철학, 문학 등을 영국에 소개함으로써 그 당시의 영국 지성계를 이끄는 지도자였다.

26) John Chapman은 미남으로 10살 이상의 부인과 아이들, 가정교사 겸 살림을 도와 주는 미스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하숙을 쳤다. 지금 런던 워털루 다리 옆에 있는 Somerset House에서 서쪽으로 10번째 집이라고 광고까지 낼 정도로 공공연하게 하숙 업을 했다. 주소가 <142 Strand> 되어있는 그 하숙집은 지금도 호텔보다는 수준이 떨어지는 민박과 여관을 겸하는 House로 사용되고 있다.

조지 엘리엇도 영국에 있는 동안 이 집에 기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존 채프먼과의 스캔들이 죽은 후까지 가십거리가 될 정도였다. 그 집은 런던의 중심지역으로 바로 옆에 웨스트 윈스터 사원과 트라팔가 광장, 레스터 스퀘어 광장, 피카딜리 광장, 러셀 스퀘어 등이 인접해 있는 곳이었다.

이 존 채프먼이 주관하는 『웨스트 윈스터 리뷰』는 노동자를 지지하는 좌파의 영향력 있는 기관지로 나중 조지 엘리엇과 20년 이상 동거인으로 살았던 조지 헨리 루이스 (George Henry Lewes가 주관했던[Leader]와 함께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였다.

런던의 지성계를 이끄는 핵심 있는 인물이 Chapman-Lewes-Hunt 였다. 헌트는 루이스와 함께 [Leader]를 주관했던 인물로 루이스의 부인과 사이에 4명의 아이를 낳았다. 루이스는 조지 엘리엇과 함께 동거하면서 부인과는 별거한다.

Rosemary Ashton, 위의 책. pp.77~125.

27) Chapman published the Westminster Review, a journal with a proud intellectual history on Radical side. Marian Evans(조지 엘리엇의 『웨스트 윈스터 리뷰』를 편집할 때까지의 이름, 그녀는 이름을 세 번 바꾼다. 그전 Mary Anne의 이름에서, 런던에서 활동하면서 Marian Evans로 바꾼다.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지 루이스와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 조지 엘리엇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바꾼다.)

조지 엘리엇은 결국 이 편집 일을 하다 동거인, 조지 헨리 루이스를 만나게 된다. 조지 엘리엇은 20대 초반기에 아버지와 함께 다니던 교회 가기를 거부함으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더니, 루이스와 바이마르의 도피 여행을 통해서 또 한번의 충격을 런던 사회에 던진다. 루이스를 영국 사회에서는 성적 이단자로 취급, 성적 문제에 있어 상당히 진보적인 의식을 가진 자식인들 까지도 그런 루이스와 함께 동거하는 조지 엘리엇을 외면했다.²⁸⁾ 조지 엘리엇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배척당했고, 그 별로 그녀는 아기를 가지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켰다고 했다.²⁹⁾

위의 두 사건을 통해서 조지 엘리엇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관해서는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것이 전통적 관습과는 대치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밀고 나갔다. 인간은 약한 면과 강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조지 엘리엇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녀의 강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그녀가 스캔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남성에게 끊임 없이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은 여성으로서 사회에 홀로 서기가 두렵기 때문에 남성들에 대한 의존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그녀는 ‘아버지 없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나는 나의 도덕적 천성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것 같을 것이다.’³⁰⁾라는 부르짖음은 그 당시 사회가 끊임없이 억압하는 가부장적 예측이 마치 자신이 그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예이다.

28) 시몬 덴티스(Simon Dentith)는 윤리적으로 상당히 엄격했던 빅토리안 시대에 결혼한 남자와 함께 동거한다는 자체가 바로 사회에서 배척을 당할 일이라며 이는 그 당시 윤리적인 척도가 남자와는 다르게 여자에게 다른 이중척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 했다.

29) Simon Dentith, 위의 책. p.16

30) Gordon S. Haight, 위의 책. p.284.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남성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과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조지 엘리엇의 모습은 크리스테바가 이야기하는 여성은 세계와는 주변적인 관계 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윤리를 자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윤리는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자아에 대한 의무와 종에 대한 의무로 설정하게 한다. 이 윤리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주체를 ‘타자’³¹⁾에게 묶어두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작품 속의 여성인물들이 결국 가족에게 자신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다.

조지 엘리엇은 루이스를 만난 이후로 여러 가지 사교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자신의 저술활동은 루이스를 통해서 향상된다. 아무리 강한 여성이라도 사교적으로 그렇게 불신과 배척을 받으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된다. 조지 엘리엇이 자기 불신과 고독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던 루이스는 끊임없는 격려와 위로로 조지 엘리엇의 심리적 안정감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조지 엘리엇이 소설가로 태어나게 해주었던 것도 루이스였다. 주로 서평과 여러 가지 수필을 써왔던 조지 엘리엇이 루이스에게 자신의 소설 습작을 보여주었던 것이 계기가 되어 루이스는 조지 엘리엇의 소설가적 소질을 발견하고 소설을 쓰도록 권고한다. 그래도 조지 엘리엇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지 못하다가 결국 루이스의 충실한 조언과 소설가가 되기 위한 평론가로서의 산파역 때문에 결국 소설가로서 탄생한다. 루이스가 조지 엘리엇에게 준 지속적인

31) 잃어버린 유아기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못하는 인간은 그 결핍을 매우기 위해 대상을 향해 간다. 상실한 어머니처럼 보이는 대상, 이것이 ‘큰타자’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다시는 찾을 수 없기에 대상을 잡으면 대상은 소타자가 되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순간, 인간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을 환상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끝없는 환유의 고리 속에서 ‘큰타자’는 소타자로 바뀐다. ‘타자’란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 속에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권택영,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비평』 창간호, 2001 pp.24~25.

조언은 쓰고 있는 소설이든, 완성된 소설이든, 쓰려는 소설이든 가능한 긍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조지 엘리엇은 동거인의 그런 지속적인 관심에 대한 감격으로 소설 발표 후 동거인 루이스와의 동질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름까지도 메리안 에반스(Marian Evans)라는 이름에서 루이스의 이름의 일부를 딴 조지 엘리엇(Gorge Eliot)으로 바꾼다.³²⁾

조지 엘리엇의 철학대로 조지 엘리엇은 동거인 루이스의 도움으로 언제나 자신 없었던 자신의 허약함을 극복하는 대신 동거인의 전 존재를 자신의 일부로서 받아들임으로써 동거인의 관련된 모든 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데 서슴지 않았다. 루이스의 아이들이 아플 때는 엄마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루이스의 전 부인에게 생활비까지 자신의 수입에서 매년 보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수입은 동거인 루이스의 통장으로 전입했다. 이는 동거인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사랑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동거인에 대한 믿음 역시 그녀의 작품이 사회적으로 환영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더 가능했을 것이다. 이는 시대적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개인의 생활이 얼마나 좌우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사회적 훈련이 취약한 여성의 경우, 주위 환경이 받쳐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성공하기 힘들다.

조지 엘리엇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휴머니즘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나가고 그것이 사회를 개혁시켜 나갈 것이라 믿고 스스로 사회개신자가 되어 실천했다. 루이스 역시 자신의 뛰어난 저술 활동에 힘입어 그것이 자신에 대한 신뢰가 되고, 사회에 확산되는 개혁의 기운이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보완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전망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를 통해 타인과 사회에 대한 신뢰로 확대되는 경험을

32) 루이스가 죽은 후 조지 엘리엇과 결혼한 John Cross는 George는 루이스의 크리스찬 이름이라고 조지 엘리엇한테 들었다고 한다.

Rosemary Ashton, 위의 책, p.166.

통해서 조지 엘리엇이라는 한 특정한 개인에 대한 사랑으로 연결되고 있다. 물론 서로 간의 사랑이 상호 헌신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상호신뢰를 낳는 힘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조지 엘리엇이 기존의 가부장적 제도를 타도함으로써 자신의 여성적 이상을 실현하려는 것보다 그 제도와 화해하면서 여성의 나아갈 길을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혁명가가 아닌 사회개선주의자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즉 여성들이 가부장적 제도를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그 사회적 구조가 남성 중심의 권력구조이기 때문에 문화적 권력 내의 남성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충돌로 결국 여성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과 법을 인정하면서 서서히 자신을 개혁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 속의 타자, '남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자기 윤리를 확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나혜석은 수원의 양반 가문에서 출생, 그 당시의 다른 신여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여학교 교육을 마치고 일본 유학을 간 전형적인 예이다. 나혜석 역시 조지 엘리엇이 『웨스트 뮌스터 리뷰』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한국의 최고 지성인으로 지칭되는 일본 조선유학생들이 발간한 학회 기관지 『학지광』, 그것의 여성판인 『여자계』를 중심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나혜석은 『여자계』의 핵심 멤버였으며 나혜석의 첫 작품 「경희」 또한 여기에 실렸다.

조지 엘리엇이나 나혜석의 가부장적 세계에 대한 반항은 이념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으로 대별해서 생각한다면, 영국에서는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한국에서는 유교적인 전통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다. 실제적인 것으로는 결혼 문제로 드러난다. 그러나 영국은 신흥 자본주의 국가로 발전하면서 자본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고, 새로운 산업의 발달과 식민지로부터 벌어들이는 자본으로 자본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에 비

해 한국은 일본 제국주의 하에서 아직 자본주의가 발달하기 전 단계였다.³³⁾ 여자들은 물론이고 남성들도 직장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 당시의 소설들의 주요 소재는 직장 구하기였다. 부모로부터 혹은 후원자로부터 많은 돈을 지원 받아 일본 유학을 다녀온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직장이 없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 몰려다녔다. 그래서 남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인 독립이 어려웠고, 여성들 역시 부모로부터 완전 독립이 어려웠다. 조지 엘리엇과 같은 저술 활동으로 경제적 독립은 더더구나 어려웠다.

그렇기에 그 당시 지성인들이 자유연애를 주장했지만, 경제적 독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유연애는 개인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 남성지식인들은 초창기 자유연애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의식하고 영과 육의 분리에 의한 정신적인 결합으로 연애를 주창하고 과거의 헌신적인 여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은 여성이라는 생래적 특징에 의해서 남성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나혜석의 의식의 밑바닥에는 심미적 사고 즉 삶의 감동에 언제나 중심이 놓여있었다.³⁴⁾

나혜석을 비롯한 신여성들의 연애 대상자의 대부분은 기혼 남성이었다. 유학한 대부분의 남성들은 기존의 유교적 전통에 의해서 이미 결혼을 한 남성이었다. 나혜석의 결혼 상대자인 김우영 역시 일본 유학생으로 일본 관청에 근무하는 엘리트로 한번 결혼 경험을 가진 홀아비였다. 나혜석의 오빠 소개로 알게 된 김우영은 나혜석의 전 애인 최승구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청혼을 했지만 거절당하고, 6년에 걸쳐 나혜석에

33) 여기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영정조 시대부터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다고 해도 물질적인 기반이 형성되지 않은 일본제국주의하의 조선 현실을 자본주의 단계라고 하기 어렵다.

34) 줄고, 『날뫼의 시학』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의식과 타자의식』(예림기획, 2005) pp.103~106.

게 매달린다. 나혜석은 옛 애인의 죽음으로 충격, 정신이 허약한 상태에서 아직 새로운 결혼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몇 년간에 걸친 구애 끝에 성공, 결국 결혼을 하게 된다. 이 결혼은 김우영의 끈질긴 구애 끝에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것, 또 김우영이 한번 결혼을 했다는 전력이 있다는 것, 전 부인과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것, 양반 출신의 나혜석의 집안과 한미한 집안 출신의 김우영의 집안이 기울어진다는 것, 또 흠어머니만 있다는 것 등으로 나혜석으로 보아서는 불리한 결혼이었다.

그래서인지 결혼 시작 전부터 김우영은 상당히 저자세로 시작한다. 나혜석은 결혼에 동의하면서 결혼 조건으로 ‘결혼 후 시어머니 될 김우영의 어머니와 전부인의 자식과는 별거할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조지 엘리어트가 결혼하면서 루이스의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아이들을 낳지 않은 것과 전부인 아그네스를 위해 매일 생활비를 보조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나혜석이 신혼여행지로 전 애인의 무덤을 찾아 비석을 세워준 것은 그 당시 아무리 여권을 부르짖는 시대라고 하지만,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졌다.³⁵⁾ 나혜석이 시어머니와 전부인의 자식과의 별거를 요구한 것은 시어머니와 전부인의 관계는 그 당시의 가부장적 전통과 관련된 버려야 할 것으로 개인의 열망과 자기 가족 중심의 핵가족을 부르짖던 시대였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나혜석은 결혼을 한 이후 자신의 첫 작품 『경희』에서 예시한 것처럼 결혼하기 전보다 더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저술활동을 했다. 나혜석은 ‘내 생활이 걸작이 되고 싶어요’³⁶⁾라는 의식 아래 단란한 가정 꾸미기와

35)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이것을 소재로 염상섭이 『해바라기』라는 작품을 썼다는 사실로도 증명이 되지만, 그 사건이 지금까지 회자된다는 사실도 증명이 된다.

36) 나혜석, 『파리의 여자』(『삼천리』, 1935.11)

자신의 개성 발휘를 위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그는 ‘조선 미전’에서 11회까지 계속적으로 입선하였으며 그 중 특선을 두 번이나 했다. 그리고 틈틈이 자신의 새로운 경험들을 글로 열심히 발표했다. 그리고 1921년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조선에서 고희동에 이어 두 번째로 여성으로는 첫 번째 유화 개인 전람회를 열었으며 그 전람회에 관객 4,5천명이 다녀가는 성황을 이루었다. 또 첫 임신했을 때의 경험 『모(母)된 감상기』를 잡지에 발표해 충격을 던진다. 이 글을 통해서 나혜석은 감각적 체험에 의해서 어떻게 어머니가 되어가는가를 구체적 경험을 나열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1927년 남편이 일본 정부로부터 외딴 임지 근무로 인해 주는 특전으로 일년 가까이 세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구주 여행길에 올랐다. 몇 군데를 거쳐 파리에 도착한 부부는 남편의 출장으로 잠시 나혜석은 혼자서 파리에 머물러야 했다. 마침 그때, 나혜석의 남편의 친구이자 그 당시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종교 단체인 천도교의 교주였던 최린이³⁷⁾ 파리에 머물고 있었다. 한국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이국 만리에서의 외로움과 이국이 주는 낭만 때문인지 남녀는 서로 가까워졌고, 불륜의 관계를 맺었다. 이로 인해 결국 나혜석은 귀국 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한다. 여기에도 복잡한 문제가 얽혀있다. 구주 여행으로 가정 경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나혜석이 최린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한 것이 와전되어 나혜석의 남편에게 전해졌고, 이것이 남편의 자존심을 건드린 것 같다. 1930년 이혼이 성립되었다.

이혼이 성립된 지 4년 후 나혜석은 자신의 인격적 통일이 부족해 저지른 잘못으로 반성한다는 『이혼고백서』라는 글을 『삼천리』 잡지에 발

37) 남편 김우영과 최린과는 1920년 동아일보 창간발기인으로 서로 인연을 맺은 각별한 사이였다. 또 최린은 나혜석과 만나기 직전까지 일본에서 여성 비행사 박경원과도 연애를 했었다.

표한다. 거기에 남편과의 이혼은 원치 않는다는 말과 자신이 이혼 할 수 없는 이유를 나열했다. 그러나 남편은 이미 마음이 나혜석으로부터 떠난 상태였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자신의 불륜으로 당한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 한 푼 없이 쫓겨난 나혜석은 친정으로부터도 배척받아 갈 곳이 없었다. 다행히 이혼 원인 제공자인 최린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았지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아니었다.

또 『이혼 고백서』를 『삼천리』라는 잡지에 발표한 것과 최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로 더 조선 사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 자신의 그림으로 다시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혼 후 심리적 혼란으로 인해 오는 수전증으로 작품 활동도 힘들었지만, 조선 미전에서라도 낙선되고, 모아 놓은 그림이 불에 타는 등 불행이 이어진다. 전시회 역시 김우영과의 결혼 중에 개최한 전시회에서는 문전성시를 이루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파리 날리듯 한산했다. 갈 곳 없이 친구 집과 지인 집으로 전전하던 나혜석을 오빠 나경석이 어느 양로원에 나혜석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다른 이름으로 보내어진다. 거기에서 나혜석은 언제 죽었지 모르게 죽었다. 그녀의 죽음은 후 나중에 알려졌다.³⁸⁾

조지 엘리엇은 동거인 루이스를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면, 나혜석은 남편으로 인해 불행해진 작가이다. 물론 나혜석의 파리에서의 불륜은 자신의 말대로 인격적으로 통일되지 않은 잘못된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 김우영이 자신 속에 나혜석이 대한 진정한 사랑, 아니 사랑이 아니라도, 인간적인 연민만 가졌어도 나혜석의 생애는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하지 않았을 것이다. 남편은 자신에 대한 사랑도 타인에 대한 사랑도 없

38) 경원대 윤범모 교수는 나혜석의 미술을 재검토하는 논문에서 1949년 3월 14일자 정부 공보처 발행에 의한 관보에 의거하여 나혜석의 사망연월을 1948년으로 확정하고 있다.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4)에서 사망년도를 1946년으로 추정해 온 것을 부정하고 있다.

는 인간이었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면, 자식에 대한 연민이 생겼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잘못을 만천하에 고하면서 그렇게 매달리는 나혜석을 그렇게 까지 내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전망도 사회나 국가에 대한 전망이 없는 식민지 국민의 어쩔 수 없는 자기 소외에서 빚어진 일이다.³⁹⁾

인간과 인간의 진정한 관계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감정이나 기대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대등한 인격체로서 관계되어 질 때 가능하다. 이런 것은 지성의 능력, 경제적인 능력, 그런 것들로 인한 미래적 전망이 가능할 때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힘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개인의 능력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때 가능하다. 그럴 때 개인과 개인과의 상호 신뢰가 발생하고, 또 그것에 의해서 타인을 수용할 여지가 생긴다. 그러한 상황이 가능했던 나라가 산업 혁명 후 영국이었고, 불가능했던 것이 일본 제국주의하의 한국적 상황이었다. 특히 한국의 1920년대에서 1930년대로 넘어가는 시점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제2차 대전을 준비하는 군국주의화가 시작되는 한국 역사상 제일 암울한 시점이었다.

39) 나혜석의 불행은 첫 번째는 나혜석 자신에게 있다. 나혜석의 평상시 삶의 모토처럼 '내 생활이 걸작이 되고 싶어요'라는 말 속에는 완벽한 현모양처의 역할과 자신의 개성의 발현을 위한 예술에 매진하는 것, 두 가지 완벽하게 했을 때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었다. 이혼 후 어느 변호사의 구애도 거절하고 독신을 고집한 것도, 자식에 그토록 연연한 것도 결국은 '진정한 자기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김우영과 그 자식들과 함께 살면서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을 때만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녀에게 개성의 발현은 '남의 일' 가정 주부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의 여가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녀의 이혼 후, 스스로가 사회에 굳건히 발을 디디지 못한 것은 남성들의 횡포도 작지 않지만, 나혜석의 그동안의 논리가 주체적이라기보다는 식민지 담론을 모방하다보니, 스스로가 양가성의 모순에 빠지게 되었다.

5. 작품과 실제 삶에 나타난 여성적 윤리

빅토리아 시대의 특징은 자유주의적 사회적 양심과 보수주의적 도덕적 결합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원성에 있다. 조지 엘리엇 작품의 주인공들은 이러한 이원성을 구현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모순과 갈등들을 표명하고 있는 인물이나 사건들로 가득 차 있다.

조지 엘리엇에 관한 여성비평가들이나 다른 여성작가들의 불만은 조지 엘리엇 자신의 실제 삶은 진보적인 삶을 살았던 반면, 작품 속의 여성 주인공들은 대부분 보수적 전통의 인습에 굴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켈다 오스틴(Zelda Austen)은 조지 엘리엇은 1000명 중에 1명 정도 나타나는 천재의 삶을 살았던 반면, 작품 속의 매기(Maggie)나 도르디아(Dorothea) 등은 평범한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한번쯤 경청할 만하다. 작품 속의 주인공이나 작품을 읽는 독자들의 대부분은 천재라기보다는 평범한 인간들이다. 그럴 때 작품을 통해서 제시해야 하는 삶은 평범한 삶에 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은 조지 엘리엇의 자서전 소설이라는 것으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조지 엘리엇과 이 작품의 주인공 매기는 둘 다 1819년에 태어났고, 조지 엘리엇의 오빠와 작품의 매기의 오빠 톰 역시 1816년에 태어났다.⁴⁰⁾ 이 점은 바로 조지 엘리엇이 이 작품을 자신의 자서전적인 것으로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본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조지 엘리엇의 실제 삶과 비교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작품으로 이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이 작품은 전통 가부장적 사회가 얼마나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애적 여성의식을 좌절시키는가를, 그로 인해 여성들은 어쩔 수 없

40) Rob Abbott & Chalie Bell, *GEORGE ELIOT*, (Hodder & Stoughton, 2003.) p.21.

이 낭만적 의식과 환상만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빅토리아 시대에 ‘완전한 레이디’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여가를 즐기고 장식적이고 의존적이며 찬양을 받는 일과 출산 이외에 아무런 기능을 가지지 않았다. 빅토리아 시대가 점차 상업화됨에 따라 남성 중심의 직업이 남자를 가정에서 빼내기 시작했을 때 가정은 남녀 역할을 촉진시켰고 동시에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고 수동적이라는 남녀 성별의 정형화를 가져왔다.⁴¹⁾

그래서 결국 여성들은 전통적 가문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지 엘리엇 역시 이에 대해 작품에서 언급하고 있다. 작품의 본문에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이런 끔찍한 편협성에 느낌을 나누려합니다. 그것이 탐과 매기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⁴²⁾

작품에서 매기와 탐의 성장 과정은 교육 과정에서부터 차별화가 시작된다. 탐보다 매기가 영리하다는 전제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탐을 위한 교육에는 교시를 구하는 일부터 어떤 공부를 시켜야 할지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에 비해, 매기에 관해서는 교육보다는 매기의 여성스럽지 않은 행동에만 관심을 가진다. 매기의 영리함이나 지적인 욕구는 오히려 ‘꼬리가 긴 여우와 같아서 쓸데없는 긴 꼬리 때문에 귀찮기만 한’⁴³⁾ 것으로 인식된다.

여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으로 엄마와 이모들로부터 듣는 지칭구나 아버지의 영리한 여자들에 대해 ‘쓸데없이 꼬리 긴 여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식, 다니엘 디포우의 『악마의 역사』 속에 나온 마녀에 대

41) Merry William, *Woma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St.Martins Press. New York. 1984.

42) 조지 엘리엇,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상권. 『한국세계문학』 94. 1984. p.288.

43) 조지 엘리엇,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상권, 위의 책. p.21

한 해석⁴⁴⁾, 오빠 탐의 전지전능한 신에 가까운 정도로 남성을 우월시하는 우월적인 의식 등은 자신의 감수성이나 지적 호기심에 의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동했던 매기의 의식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이런 의식은 매기의 정서 불안정으로 나타나고, 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 매기의 탐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을 통해서 남성 우월주의 내지 가부장적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회구가 매기의 의식 속에 살아있음을 보여준다. 매기의 이런 회구는 아버지의 파산으로 인한 몰락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아버지의 파산 이후 탐은 남성 우월주의로부터 기인된 가족에 대한 남아의 의무와 권리라는 목표를 향해 전력을 기울인다. 결국 파산 전의 물방앗간과 집을 찾는데 성공한다. 파산 후 탐의 현실에 대처하는 모습이나 위기관리 능력이 탁월, 어릴 때의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공부를 싫어하던 모습과는 정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탐의 이런 모습은 남성이라는 오직 그 이유만으로 부모를 비롯한 주위 사람들로부터의 신뢰로부터 오는 자신감에 의한 것이다. 여성답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하는 짓마다 꾸지람을 듣는 매기와는 달리 탐의 실수는 충분한 이유를 가진 것으로 이해됨으로써 남자로서의 우월감을 키우는 근본 원인이 된다.

그에 비해 어릴 때 총명함을 보여주었던 매기는 파산 후에는 힘을 잃은 모습으로 제시된다. 탐은 매기에게 자신이 어머니와 그녀가 살 집을 장만할 때까지 다른 일자리를 찾지 말고 플레 이모 집에 암전히 있으라고 설득한다. 이처럼 매기의 행동반경을 제한함으로써 자아성취, 사회로의 진입을 방해받음으로 인해 매기는 무력감 속에서 자기 부정의 미학

44) 다니엘 디포우(Daniel Defoe)의 『악마의 역사』라는 책에서 마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물속에 넣어 물에 빠져 죽으면 죄가 없고, 살아나오면 마녀라는 아이러니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줌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 (Penguin Popular Classics 1994. p.14)

을 스스로 키우게 된다. 매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껏해야 슬퍼하는 엄
 마나 분노에 휩싸인 아버지를 위로하는 일 뿐이다. 매기가 자신의 삶의
 궤도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녀는 극심한 자기 소외에 빠지고 결국 켈
 피스의 체념의 철학을 받아들인다. 체념을 통해서 오는 무력감과 결핍
 감으로부터 오는 현실 타개책은 자기부정 밖에 없다. 자기애로부터 비
 롯된 자신의 인정어린 동정심과 들끓던 지식욕은 체념의 철학을 받아들
 인 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변한다.⁴⁵⁾ 매기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극단
 적인 금욕주의는 결국 남성들과의 낭만적인 사랑이 꽃피면서 막을 내린
 다. 또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런 낭만적 사랑은 매기에게 부정적인 여성
 의 정체성을 부여하게 된다.

“네가 느끼는 감정이 내 감정보다 더 훌륭하다면 그 훌륭한 감정을 좀
 다른 식으로 보여봐...”

“오빠, 그런 오빠가 힘을 갖고 세상에 뭔가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 네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복종해야
 지”⁴⁶⁾

위의 인용문은 매기가 그녀의 가족을 파멸에 넣은 사람의 아들인 필
 립과의 비밀 데이트를 하다 탐에게 들킨 후, 탐이 매기에게 억압적으로
 벨은 말이다. 탐의 억압이 강화되자 반항적이었던 매기는 순종을 내면
 화하려는 극단적인 변화를 시도한다. 그런 변화 후 결국 매기는 당대 이
 데올로기가 부여했던 여성적 최고의 선인 자신의 ‘미’를 확인함으로써
 그 사회와 정면으로 바로 설 수 있었다. 즉 스티이븐과 필립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미모와 매력을 확인함으로써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 올

45)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 위의 책. pp.293~294.

46) 박춘배 옮김, 『플로스 강의 물방아간』, 하권 위의 책 p.107.

수 있었다. 자신을 회복한 매기는 자신이 되돌아가야 할 집은 필립에게도 스티이븐에게도 아닌 가족의 대명사인 오빠 탐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자신의 정체성은 가족과의 재결합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발견을 하게 된다. 즉 스티이븐과의 사랑을 거부함으로써 그 당대의 성 이데올로기인 여성적 가치, 미모, 매력으로 자신의 가치로 삼지 않고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 삶의 숨결이 숨 쉬고 있는 과거의 집합체인 가족과의 재결합을 중시한 것이다.⁴⁷⁾

이것은 조지 엘리엇이 추구하는 ‘완전한 선예의 동경’이라는 자신 스스로 확립한 윤리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과거의 인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충실함이다. 결국 탐과 루시 등의 친척과의 맺은 인연을 훼손하지 않고 과거의 관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관계란 다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 놓은 감정이나 기대를 따르는 것’⁴⁸⁾이다. 스티이븐의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곧 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매기에게 탐은 집의 대명사이고, 집은 안식처요 성스러운 유해가 안치된 성소다. 또 타락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다. 매기가 탐에게 돌아 온 것은 바로 모든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편안한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은 천성적으로 감수성이 예민하고 지적 호기심이 가득한 매기가 가부장적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오는 소외로 인해 많은 갈등과 고통을 집안 몰락으로 더 심하게 겪은 결과로 인해 다시 가부장적 문화의 대명사 ‘집’으로 돌아 온 것이다. 여성이 갈 곳은 결국 집인 것이다. 여성들의 자아 추구는 가부장적 문화를 받아들일 때

47) Merry williams, *Woma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New york, 1984. St. Martins Press, 이 책에서 저자는 빅토리아 시대의 충실한 여성의 세계는 집안에 있다고 했다. 조지 엘리엇의 이런 여성상은 당대 독자들에게 친근한 여성상이다. 조지 엘리엇이 작품 발표 당시 이 작품이 디킨즈를 비롯한 남성작가들이나 당대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이유도 일부 이런 여성관에서 유래한가고 지적했다.

48) 박춘배 옮김, 위의 책, 하권 p.171.

성취 될 수 있는 것이며, 성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적 문화의 표상 ‘집’에 잘 적응할 수 여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작품 속에서 나온 예화들, 자신의 지적 호기심에만 도취, 제멋대로 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고집불통인 매기를 어머니는 ‘언젠가 물에 빠져 죽을 거라’는 자기 암시를 통하여 매기의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가하면, 책에서 본 마녀의 이야기와 스티이븐과의 표류 이후 세인트 오즈 읍 사람들의 매기에 대한 험담 등을 통하여, 매기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한다. 이런 자기 부정과 소외를 통해서 매기는 자신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잃게 되고 그 당대의 성 이데올로기를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한다. 매기가 그 당대의 마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루시로 대변되는 그 당대의 이상적 여인상을 품고, 탐으로 대변되는 가부장적 이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매기가 여성이라는 사회적 제약에 의해서 자신 스스로의 고유한 자아를 버림으로써 그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고자 한 것은 여성성의 가치를 당대의 이데올로기와 조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매기의 여성성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생각하는, 나와 타인을 동일시함으로써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다.

쇼왈트는 19세기 여성들의 천성적 창조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중심이 있으며 그녀들의 적절한 영역은 결혼에 있다고 말한다.⁴⁹⁾ 또 길버트와 구바는 여성작가들의 글쓰기는 자기 분열의 의식의 영상을 보여 준다고 했다.⁵⁰⁾ 이와 같이 여성 작가에 의해서 감지된 자기 분열은 여자 주인공의 자기분열로 나타나고, 여성 작가의 그 시대 의식의 반영이며 곧 언어의 반영에 의한 것이다.

49) Pam morriss, “Challenging the canon and Establishment”, *Literature and Feminism* 1993. 여기에서 Showalter 부분 재인용 p.44.

50) Pam Morris, “Writing by Woman”, 위의 책, p.85.

나혜석과 조지 엘리엇은 출발 지점부터 다르다. 나혜석은 진명여학교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 졸업하면서부터 신문에 그녀의 진명여학교의 우등을 알릴 정도로 주목받는 여성이었다.⁵¹⁾ 김일엽은 나혜석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렇게도 잘났던 나혜석! 미의 화신으로 남자들의 환영에 둘러싸였던 나혜석!, 최초의 여류 화가로 여류 사회를 그렇게 빛냈던 나혜석!’⁵²⁾ 김일엽의 표현대로 나혜석은 집안, 학벌, 미모에 있어서 조지 엘리엇과는 달리 못 여성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꺼릴 것이 없었다. 그렇다고 식민지 모국을 둔 그녀가 식민지 지배와 전 시대의 유물인 가부장제 억압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나혜석의 인생은 지배와 피지배, 근대와 봉건주의, 남성과 여성 등 양극단 사이의 모순을 그대로 표현한 모노 드라마였다. 이 연구에서 다루게 될 그녀의 글쓰기 특히 소설 「경희」와 「이혼고백서」는 그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다.

이 연구에서 장르가 다른 「경희」와 「이혼 고백서」를 함께 다루는 것은 최근 여성문학 연구경향이 협의의 ‘문학’에서 광의의 ‘글쓰기’로 확대되고 텍스트 중심에서 텍스트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⁵³⁾ 나혜석 당대에는 글쓰기가 자신의 체험을 넘어 서지 못했기 때문에 위에서 쓴대로 모든 담론이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테면 「경희」 역시 소설의 양식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거의 자기 체

51) 『매일신보』, 1913년 4월 1. 2일자

52) 김정동, 『나혜석의 미술 동선』(제5회 나혜석 학술논문집) 2002. 4. p.44.

53)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로 사회적 문화적 차이로 위계화하는 것이 담론의 힘이고, 담론의 힘이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어문생활이라고 보면, 여성담론에 대한 분석은 여성주의 문학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이면서 여성어문 생활사 연구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된다.

이경하, 『근대를 바라보는 여성주의 시각』, 제1회 여성주의 인문학 학술대회. 2006. 6. 10. p.32.

험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혼 고백서』가 집약적인 자기 인생고백론이었다면, 『경희』는 나혜석의 인생관을 허구적 틀을 빌려 재구성한 것이다.

『경희』의 발표 연월이 1918년이고 『이혼고백서』를 발표한 것이 1934년이고 보면, 『경희』를 먼저 분석하는 것이 순서일 듯하나, 나혜석의 철학내지 인생관이 압축된 『이혼고백서』의 분석을 통해서 나혜석의 철학을 분석한 다음, 『경희』를 분석하는 것이 나혜석을 비롯한 당대 신여성의 심리적 풍경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나혜석이 남편 김우영과 이혼이 성립된 것은 1930년 11월 20일이고 『이혼고백서』⁵⁴⁾를 발표한 것은 이혼 4년 후인 1934년이다.

이 글은 고백적 글쓰기로 자신의 삶의 고통과 절망을 다 드러내 보인 후의 자신의 존재의식을 회복하고 자기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자하는 의도로 쓰여진 글이다. 이 글은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 글로,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 우리나라 사람들의 왜곡된 민족성, 결혼까지의 내력, 화가로서 주부로서 자신의 가정생활, 최린과의 관계, 이혼 후의 상황 전개, 지금까지의 자신의 향방, 모성에 대한 자신의 소견, 이혼 후의 금융생활, 이혼 후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인생관 피력 등으로 자신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미래에 앞으로의 생활까지 총체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다.⁵⁵⁾

여기에서 전체적인 글 중 자신의 인생관을 피력한 부분, 마지막 장인 『청구씨에게』만을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겠다. 이 글에서 나혜석은 ‘인생은 가정만도 인생이 아니요, 예술만도 인생이 아니외다. 이것저것 합한 것이 인생이외다.’라며 ‘근대인의 이상은 남의 하는 일을 다하고 남는 정력으로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최고 이상일 것일 것이외다.’

54) 『삼천리』 1934. 8-9.

55) 줄저, 『날뚨의 시학』,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체험과 타자의식』 예림기획. 2005. p.115.

고 했다. 여기에서 나혜석이 근대인의 이상을 처음부터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고, ‘남의 일’을 다하고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다’라고 한 것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한 전략인 것이다. 이 또한 엘리엇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적 사회에서의 타자 ‘남성’을 자신 속에 받아들임을 윤리로 삼고 있다. 여기서 그러면 ‘남의 일’은 무엇인가. 이는 곧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에게 부과한 일 여성의 가사 노동이 될 것이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나혜석의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라기보다는 그 당대의 서구 근대문화를 모방한 현모양처론을 내면화한 욕망이며, 그 당대의 남성들의 욕망이 내면화되어 있다. ‘남의 하는 일을 다하고 남는 정력으로 자기 개성을 발휘하는 것이 최고의 이상’이 근대인이라면 결국 근대인은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혜석의 ‘슈퍼우먼 콤플렉스’는 가정 내의 모든 일은 여성이 해야한다는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 의해서 자신을 내면화시키고 또 근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민지 지배 담론에 의해 형성된 서양 중심의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 즉 남성과 식민지 지배 담론에 의해서 형성된 모순된 양가성의 논리이다.⁵⁶⁾ 이 모순된 양가성의 논리는 식민지 여성들은 서구 근대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모방함으로써 타협하게 되고, 근대화와는 상반되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해서 형성된 현모양처 콤플렉스에 의한 이중 욕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이 양가성의 모순은 나혜석의 글쓰기 전체의 맥을 이루고 있으며, 또한 나혜석 혹은 신여성, 신지식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 되고 있다. ‘거의 같지만 똑같지는 않은’ 닳은꼴의 식민지인은 모순된 심리적 정서와 양가성을 지니게 된다.⁵⁷⁾ 여기에는 분명 식민지 현실이 가로 놓여

56) Homi K.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57)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 기획과 타자성』, 나혜석 심포지움, 제4회 논문집,

있고, 그 식민지 현실의 불투명성은 모든 조선 사회를 황폐화하고 있다. 나혜석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정한 주의가 확립치 못하고 고립한 인생관이 서지를 못하여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시일을 보내고 맙니다. 이는 대개 정치 방면에 길이 막히고 경제에 얽매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관계도 있겠지만 너무 산만적이 되고 말았나이다.⁵⁸⁾

나혜석의 이런 심리적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슈퍼우먼 콤플렉스’이다. 작품 『경희』에서 자기 정체성을 추구하는 신여성 ‘경희’가 방학마다 집으로 돌아 와 하는 일이 다락 정리부터, 다림이질, 김치 담그기, 바느질하기 등 일체의 가사 노동이다. 이런 ‘경희’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그 당시 신여성의 주체적인 행동을 오해하는 그룹, 즉 근대 여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근대 여성들을 폄하하는 그룹을 설득하는 서사의 목적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여성들에게 ‘집의 천사’를 원했지, 사회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주체적인 여자를 원하지 않았다. 나혜석은 ‘신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전통적 여인상을 고집하고, ‘신여성’을 거부하는 보수 진영, 나이든 여자, 소설에서 ‘사돈 마님’이나 남성 그룹들에게 ‘신여성’의 바람직한 상을 보여줘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나혜석은 생각, 계몽을 시도했다. 이 소설의 형태는 다른 계몽 소설과 달리 계몽의 주체 ‘경희’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경희’의 어머니의 입을 빌려 사돈 마님을 설득한다. 설득하는 수법도 ‘경희’의 어머니가 ‘경희’ 즉 ‘신여성’의 좋은 점과 왜

p.116.

58) 나혜석 『이혼 고백서』, 『나혜석 전집』 한길사, 2000. p.424.

여성들의 교육이 필요한가를 말하기보다 ‘사돈 마님’의 궁금점을 풀어줌으로 스스로 감동하게 한다.

이 작품에서 ‘경희’의 ‘슈퍼 우먼’적 생활방식을 계몽적 ‘신여성’상으로 작가가 설정한 것은 작가 자신의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그 당대 사람들이 ‘신여성’에게 바라는 여성상이기도 하지만, 나혜석의 일본 유학 시절, 보아온 식민 지배 담론에 의해서 형성된 모방된 여성상이기도 하다. 작품 『경희』에서 뿐 만 아니라 『이혼 고백서』에서 자신의 삶이 ‘결박이 되고 싶어요’라는 욕망 속에는 주부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또 한 사람의 애인으로서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경희』의 마지막 장, 아버지가 고집하는 자신의 집안과 비슷한 자제와의 우애혼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주체적인 철학을 정립하기 전에 결혼부터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당연하다.

나혜석의 『경희』에 드러나고 있는 ‘슈퍼우먼’식 여성상은 ‘신여성’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한다는 목적과 위에서 서술대로 나혜석의 근대 개성있는 주체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한 것이다. 주체적인 여성상 ‘신여성’은 과거의 불합리한 삶의 양식을 따르지 않고, 합리적인 삶의 방식, 개성적인 주체로서 살면 되는 것이다.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즉’ ‘체면’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이미 구시대적 삶의 방식인 것이다.

나혜석의 이런 의식은 주체적인 자기의식이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의 식에 의한 모방으로 실천에 있어서는 양가성의 모순을 보여준다. 양가성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낸 글은 『모(母)된 감상기』이다. 이 글에서 나혜석의 논리의 예리함과 함께 히스테릭한 측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결혼 하면서 여성들은 ‘임신’을 당연히 예상해야 한다. 그러함에도 나혜석은 임신했을 때의 심리적 상황을 ‘모든 사람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 같

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런 의식의 밑바닥에는 『이혼고백서』에 제시한 '남의 일을 다하고 나머지 자기 개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의식과는 모순된 심리가 내재해 있다. '남의 일'이라는 가사 일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 양육이다. 그러함에도 나혜석이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결국 나혜석의 의식이 자신의 주체적인 의식이기 보다는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 가부장적 의식이나 식민지 담론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대의 지배 담론과 자신의 의식과의 논리적 모순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정신적 분열 증상이 발상한다. 마찬가지로 이런 양가성의 모순 속에는 '경희'의 신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의지와 함께 양반 부자집 마님으로서 편안히 살고저 하는 양가성 모순 속에서 그녀의 불안한 심리가 노출된다.

경희는 다시 제 몸을 위서부터 아래까지 훑어본다. 이 몸에 비단 치마를 늘이고 이 머리에 비취 옥잠을 꽂아볼까. 대가덕 만며느리 얼마나 위엄스러울까. 새애기 새색시 놀음이 얼마나 재미있을까? 시부모의 사랑인들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렇게 천둥이던 몸이 부모에게 얼마나 귀움을 받을까. 친척인들 얼마나 부러워하고 우러러볼까.⁵⁹⁾

여자가 자기 개성을 잇고 살 때, 모든 생활 보장을 남자에게 받을 때 무한히 편하였고 행복스러웠나 이다마는, 여자도 인권을 주장하고 개성을 발휘하려고 하며, 남자만 믿고 잊지 못할 생활전선에 나서게 된 금일에는 무한히 고통이요, 불행을 느낄 때도 있는 것이외다.⁶⁰⁾

사람의 행복은 부(富)를 득한 때도 아니요, 이름을 얻을 때도 아니요.

59) 나혜석, 『경희』, 『나혜석 전집』, 한길사. 2000. p.99.

60) 나혜석, 『이혼고백장』, 위의 책, p.421. 나혜석은 『이혼고백서』를 처음 발표했을 때는 『이혼고백장』으로 나중에는 『이혼고백서』로 바꾼다. 이 논문에서는 『이혼고백서』로 통일하되 특정한 인용은 원문 그대로 하겠다.

어떤 일에 일념(一念)되었을 때외다. 일념이 된 순간에 사람은 전신(全身) 세청(洗靑, 깨끗이 씻음)한 행복을 깨닫습니다. 즉 예술적 기분을 깨닫는 때외다.⁶¹⁾

위의 인용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용문은 자신의 체험적인 것보다는 부자집 만며느리나 개성을 잊고 사는 구시대 여성에 대한 세속적인 여론을 반영한 글이라면 세 번째 인용문은 자신의 체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인용문에서 자신을 잊고 어딘가 몰두 할 수 있는 예술의 길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은 체험을 통한 것이다. 그러나 세 번째 어디에 몰두 할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인용문에서처럼 개성을 말살한 몰개성 속에서 물질적인 풍요만 누리는 것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부잣집 만며느리에 대한 부러움의 묘사가 구시대의 여성의 삶의 모순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피상적인 인식에 머무르고 있고, ‘어떤 일에 일념 된’ 기분이 꼭 예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시대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질적인 풍요로 인한 행복만이 아니라 가정을 다스리는 일에 몰두할 수도 있고, 남편에게 자식에게 몰두하고 희생함으로 행복 할 수도 있다. 구시대의 삶과 근대적 삶의 차이는 가치관의 차이일 뿐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아닌 것이다.

또 양가성의 논리는 「경희」에서 보여준 인격적 통일을 보여주는 ‘경희’의 모습과 실제 삶을 고백한 「이혼 고백서」의 통일되지 못한 인격을 통해서 보여 준다. 「경희」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타인에 대한 배려가 훌륭한 것이 실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김우영과의 결혼 조건으로 ‘시어머니와 전실의 딸’과 따로 살 것을 조건으로 한다든가, 일년 반 이상의 외유 기간 중 자신의 세 명의 자녀들을 맡아 키워 준 시어머니, 시누

61) 나혜석, 「이혼고백장」, 위의 책, p.423.

이에게 선물하나 사오지 않아 이혼 할 때, ‘친척들에 대한 배려 없음’이 중요 사유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고, 결혼한 남편과도 사랑하고 있으면서, 외유 중 파리에서 최린과의 연애 사건은 이런 양가성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6. 여성성 실천으로서의 ‘숭고한 법에 굴복’과 ‘슈퍼우먼 콤플렉스’

크리스테바는 여성은 큰상징계와는 주변적인 관계 밖에 가지지 않기 때문에 윤리에 대해서 더 많이 자각해야한다는 것이다. 이 윤리는 타자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자아에 대한 의무와 종에 대한 의무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윤리는 법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주체를 ‘타자’⁶²⁾에 게 묶어두는 것이다. 이 윤리적 모델은 어머니의 아이와 같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자신에 대한 사랑이요 자신 내부의 타자를 포용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려는 마음이기도 하다.⁶³⁾ 조지 엘리엇의 ‘숭고한 법에 굴복’하는 것이나 나혜석의 ‘슈퍼우먼 콤플렉스’ 역시 이런 윤리에 의한 것이다.

조지 엘리엇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나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철학은 ‘가장 고도의 숭고한 법에 굴복하는 것’이다. 조지 엘리엇의 삶에서 나

62) 잃어버린 유아기의 어머니를 결코 잊지 못하는 인간은 그 결핍을 매우기 위해 대상을 향해 간다. 상실한 어머니처럼 보이는 대상, 이것이 ‘큰타자’이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다시는 찾을 수 없기에 대상을 잡으면 대상은 소타자가 되어 미끄러지고, 미끄러지는 순간, 인간은 살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을 환상의 눈으로 바라본다. 이 끝없는 환유의 고리 속에서 ‘큰타자’는 소타자로 바뀐다. ‘타자’란 억압된 무의식이 의식 속에 위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권택영,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비평』 창간호, 2001, pp.24~25.

63) 켈리 올리버, 『무법의 논리』, 위의 책. p.284.

타나는 자유분방함이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는 도덕적 엄격함은 결국 ‘가장 고도의 숭고한 법에 굴복하는 것’의 일레라 할 수 있다.

조지 엘리엇의 ‘가장 숭고한 법에 굴복’하는 삶은 소설에서 자신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 삶에서도 동거인 루이스의 자녀들을 배려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는다는가, 루이스의 자녀들이 아파, 장기간 입원했을 때 헌신적으로 간호 했다는가, 루이스의 부인에게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대어주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는 나혜석이 실제 소설에서 보여준 배려의 삶이 실제 생활에서 모순되게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조지 엘리엇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자유분방함 역시 숭고한 법에 굴복한 것이다. 남편 루이스와의 동거를 통해서 보여준 자유분방한 삶은 관습적 법, 인간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선택이라는 세 가지 층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지 엘리엇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준 도덕적 엄격성과 삶을 통해서 보여준 자유분방함은 사회적 유기적 관계에서 인간의 진정한 관계라는 ‘숭고한 법’을 따른 것이다.

나혜석에게 나타난 ‘슈퍼우먼 콤플렉스’ 역시 남성 우월주의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사회적 유기적 인간관계를 고려한 삶의 전략이다. 나혜석의 ‘슈퍼우먼’식 여성상은 『경희』에서 나타난대로 거의 완벽한 여성상이다. 가사일을 전적으로 가정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경희 자신이 가사일을 도움으로써 타인에 대한 배려 정신을 보여 줄뿐만 아니라 일본어 능력이 탁월, 부의 형성하는 데도 남자와 못지않다. 이것은 남성들과는 달리 여성들은 하나의 원칙을 고집하기 보다는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는 열린 주체로서 여성적인 특징이기도 하다.

조지 엘리엇이나 나혜석의 전략은 여성적 본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살핍의 미학에 의해서, 여성 주체로서 중심이 아니라 다양을 통일적이게 하는 힘, ‘여성’이라는 형식 안으로 모으는 힘이며 그 힘의 역동적 표현

인 것이다. 그 힘은 어느 한 지점에서 권력의 형태로 자리 잡지 않으며 끝없이 유동하는 여성성의 실천의 장이다.

조지 엘리엇이 태어나고 활동했던 시대는 산업 혁명 후 영국을 가장 부흥시켰던 빅토리아 시대였다. 식민지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자본은 나라의 부를 증강시키고, 의식 개혁과 제도 개혁으로부터 미래를 확보하고 있었다. 이런 국가적 전망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긍정과 자긍심으로 이어지고 이는 타인에 대한 긍정과 협력으로 이어진다. 조지 엘리엇과 남편 루이스와의 관계는 이를 증명한다. 그렇게 자기 부정과 자신감이 없었던 조지 엘리엇을 일류 소설가로 만들고, 그로 인해 경제적부활 함께 누리게 했던 사람은 동거인 루이스였다. 이것은 루이스 역시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신감과 '자기긍정'에 힘입어 조지 엘리엇을 감싸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식민지인으로서 식민지 지배담론에 의해서 근대를 모방하려고 했지만, 정치, 경제적 토대의 상실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한국의 식민 지식이나 신여성은 자기 당착과 '자기부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자기 상실감은 타인에 대한 부정으로 나타나고 양가성의 논리에 빠지게 된다. 나혜석과 남편과의 이혼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그렇게도 자신에 넘쳤던 나혜석이 이혼 후 빠른 속도로 황폐화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조지 엘리엇과 나혜석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여성과 여성으로서의 배려의 삶을 중요시하는 열린 주체로서 열심히 살았지만, 식민지 지배국인 영국의 여성과 한국의 여성의 삶이 전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의 축적과 제도 개혁을 함께한 영국은 근대 영국을 향해 가는 전망이 개인에게까지 미쳐 긍정적인 자기 발전으로 나아가고, 타인을 함께 어우르는 삶으로 자리잡은 데 비해 한국에서는 절름발이식 개혁, 물질적인 부의 축적이나 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의식 개혁

만을 부르짖고 식민지 지배 담론만을 모방하려고 한 양가성의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인 개개인은 ‘자기부정’에 이르고 이는 타인을 폄하하고 축출하는 극단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나혜석 역시 자신 스스로도 양가성의 논리 속에서 모순을 보여주지만 그로 인한 희생자이기도 하다.

□

1. 기본자료

나혜석, 「파리의 여자」(『삼천리』, 1935.11).

조지 엘리엇, 「플로스 강의 물방앗간」 상, 하권. 『한국세계문학』 94. 1984
이상경, 『나혜석 전집』(태학사, 2000).

『女子界』 제3호. 1918. 9.

『新家庭』 1921. 7.

『朝鮮文壇』 1926. 4.

『三千里』 1936. 12.

2. 국내 논저

권택영, 「타자란 무엇인가」 『타자비평』 창간호, 2001.

김정동, 『나혜석의 미술 동선』(제5회 나혜석 학술논문집) 2002. 4.

김복순, 「『경희』에 나타난 신여성 기획과 타자성」, 나혜석 심포지움, 제4회
논문집.

나혜석, 「파리의 여자」(『삼천리』, 1935. 11).

박희진 외, 『페미니즘 시각에서 영미소설 읽기』(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조정호, 『조지 엘리엇의 소설연구』(이화여자대학교, 1993)

줄리아 프렛윗 브라운, 『19세기 영국 소설과 사회』(열음사, 1990) 박오복,
이 경순 공역.

- 이구열, 『에미는 선각자였느니라』(동화출판공사, 1974)
- 이덕화, 『날뫼의 시학』 『여성문학에 나타난 근대의식과 타자의식』(예림기획, 2005)
- 이순구, 『조지 엘리엇와 빅토리조 페미니즘』(동인, 2003)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여이연, 2006)
- 한혜경, 『조지 엘리엇와 여성문제』(동인, 1998)

3. 외국 논저

- CC Eldridge, *Victorian Imperialism*(Morrison and Gibb Ltd, 1978).
- Homi K.Bhabha,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George Eliot, *The Mill on the Floss*, penguin Popular Classics 1994.
- Joseph Wiesenfarth, *Goerge Eliot's Mythmaking*(Heidelberge, Carl Winter Univ, 1977).
- Merry William, *Woman in the English novel, 1800-1900*, St.Martins Press.
- Rosemary Ashton, *George Eliot, A life*(penquin books, 1996).
- Pam morriss, "Challenging the canon and Establishment", *Literature and Feminism* 1993.

Abstract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practical feminism in Korean new women writer and England new women writer of Modern First period

Lee, Duk-Hwa

This research compares meaning of practical feminism through writings and lives between Na Hye-Suk and George Eliot and show feministic approach. Feministic approach means by a method to analyze every events and ideas that are shown in writings and lives through woman's point of view.

The first motive to start this research was from assumption that difference between Na's miserable life and Eliot's happy and successful life was caused by different traditional ethics of their societies, historical backgrounds, and personal abilities to face those.

During modernization of Korean society, conscious reform, which is supposed to develop with balance between economic and political growth, was too sudden to make this balance happen due to gloomy political situation. Many intelligent people insisted women to live their own lives by way of conscious reform but Korean women found it not simple to do so under the situation that would now allow their individual economical independence. This kind of situation led not only women but all the intellectuals not to have any positive belief in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at the end, they tended to deny their self-led lives as well as denying presence of their nation. A new group of woman intellectuals

was at last one of the biggest scapegoat under the mental panic. They had to be expelled from their society and history being accused of destruction of patriarchy and national insurrection to copy modernization of Western society.

On the other hand, British social reform, started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gether with growth of bourgeois, has produced trust towards the society through trust and confidence in future of nation and led to accept self confidence and traditional ethics together. Having self confidence then led to philanthropism to accomodate and love others' lives and ideas. George Eliot's liberal life or ethical strictness from her writings may be a good example 'to submit to the most noble law'. This 'the most noble law' means that human's life can not be apart from social standards and relationship. Eliot's life and writings were indeed practices of feministic movement that is flexible and available to any society.

This research now shows how Na and Eliot in two different society face their lives and put these in their writings, and also shows how their feministic ideas are revealed in both their life and pieces.

key words : Feministic approach, Patriarchy, Self confidence, Self deny.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1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